

우리들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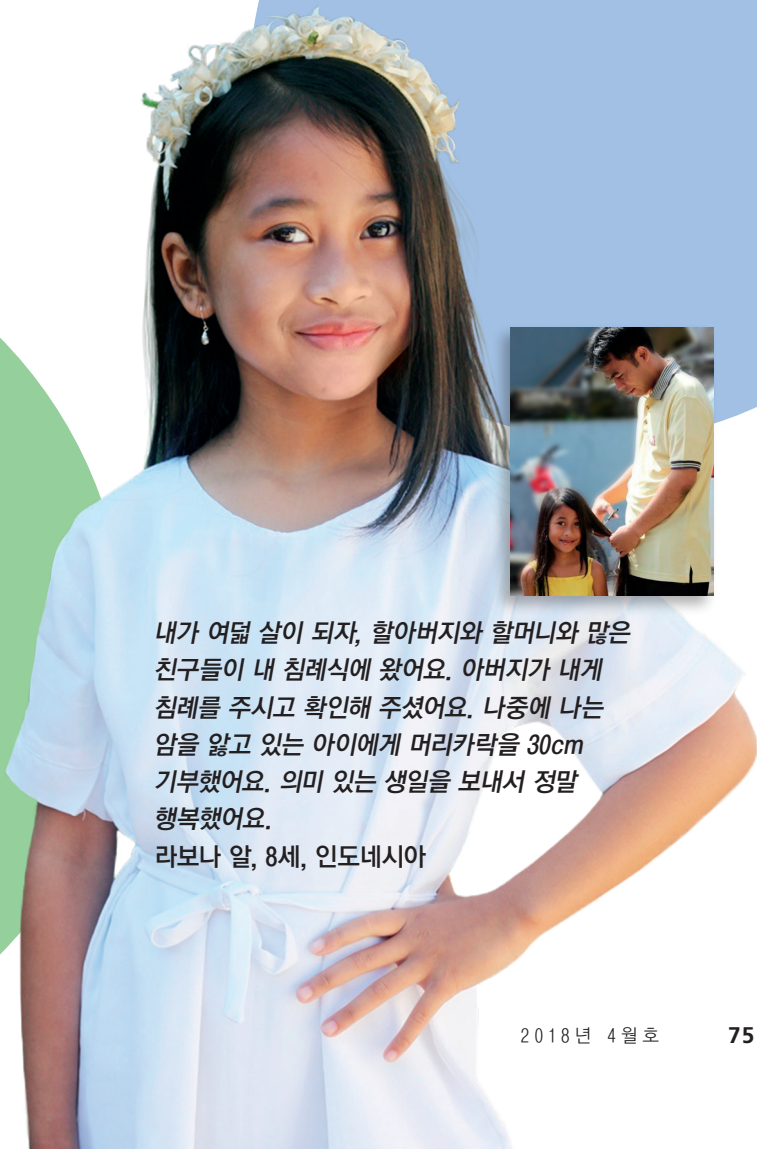
나는 침례식에서 긴장이 되었지만, 물속으로 들어가자 마음 가득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어요.
토마스 비, 8세, 우루과이



우리는 꼬마 여동생 로라를 우리 가족으로 인봉하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중국 홍콩 성전까지 왔어요. 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영을 느꼈어요.
로사 피, 9세, 캄보디아



어느 날 수업 시간에, 다른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. 종소리가 울리자, 아이들은 선반에 게임을 쑤셔 넣어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. 내가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곧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. 나는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 빛을 비추었어요.
위니 더블유, 10세, 캐나다



내가 여덟 살이 되자,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많은 친구들이 내 침례식에 왔어요. 아버지가 내게 침례를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. 나중에 나는 암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머리카락을 30cm 기부했어요. 의미 있는 생일을 보내서 정말 행복했어요.
라보나 알, 8세, 인도네시아